

전국 10만 조합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 민주노총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윤 즉각 파면 외쳐
- 양경수 위원장 “4월 3일 광화문에서 대의원대회 개최, 윤 끝장내는 투쟁할 것”
- 광화문, 수도권 대회 참가자 3만명 참가, 전국 10만 조합원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7일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조합원 10만 여명이 전국 15곳에서 동시에 집결해 투쟁했다. 민주노총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조합원 3만여명은 이날 서울역, 명동역,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각기 모였다가 행진해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날 총파업 총력투쟁 참가자들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악몽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사황을 걸고 싸울 것이다. 윤석열에게 살인면허를 줄 수 없다”면서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걸자. 한국 사회 고비 고비마다 시대와 민중의 요구를 마다하지 않은 노동자가 나서자”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명령을 배신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라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내일(28일)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다. 4월 3일 광화문 이 자리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하겠다. 그 힘으로 윤석열을 끝장내는 투쟁, 이 나라의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투쟁, 제대로 된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한국지엠지부는 오늘 민주노총 투쟁 지침에 따라 전/후 반조 2시간 파업을 힘차게 결의했다”라며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목격했음에도 내란 수괴 하나 가두지 못하는 공권력이 애먼 노동자만 때려 잡는다”고 개탄했다. 안 지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내란 잔당이 발붙일 수 없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건오 부위원장은 “법 기술을 이용해 떼를 지어 다니며 국민을 해치는 도둑이 있다. 검찰, 판사, 헌법재판관이다. 이 법비들은 양심이 없고 비겁하고 치졸하다”며 “공무원노조가 법비들에게 ‘윤석열 탄핵’ ‘내란공범 구속’을 외치니, 돌아오는 정치중립 위반이다. 공무원도 정치표현을 보장해야 사회대개혁도 이루어 진다”고 주장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발언문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건오 부위원장 발언문

[첨부] 대회 사진

[붙임] 1. 대회 개요

1. 개요

- 일시 : 2025. 3. 27(목) 15시
- 장소 : 16개 지역별 거점(전국 동시다발)
- 대회명 :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2. 수도권 대회

- 참가 : 서울·경기·인천 지역 조합원
- 일시 : 2025. 3. 27(목) 15시(행진) / 16시(본대회)
- 장소 : 15시 3개 거점별 집결 및 행진 → 16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3. 행진 순서

1) 민주노총

경로	출발시간	집결	경로
경로 1	15:00	서울역 11~12번 출구	서울역→경찰청→서대문역사거리→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
경로 2	15:00	세종호텔 농성장 명동역 1번 출구	세종호텔→승례문→서울시청사거리→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
경로 3	15:00	서울고용노동청 고공농성장	서울고용노동청→종로2가사거리→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

2) 시민 행진

경로	출발시간	집결	경로
경로 1	14:00	신촌역 5번출구	신촌역→충정로역→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민주노총(1)과 합류
경로 2	14:30	서울역 12번출구	서울역→승례문교차로에서 민주노총(2)과 합류
경로 3	14:00	혜화역 3번출구	혜화역→종로5,4,3가→탑골공원 앞에서 민주노총(3)과 합류

3. 16시 본대회 순서

사회 : 고미경 사무총장

시간	순서	내용
16:00	개회 선언	노동의례 (포토타임)
16:07	투쟁사 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16:10	투쟁사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건오 부위원장
16:18	노래 구호	(포토타임)
16:20	문화 공연	전교조 율동 공연 '우리는 가지요'
16:26	브릿지 영상	
16:28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6:32	폐회 선언	민주노총가 제창

4. 전국 대회 개최 현황

지역	시간/장소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시, 3개 거점 집결 및 행진 16시, 광화문 동십자각(본대회)
충북본부	15시, 충북도청 서문
대전본부	18시, 은하수네거리
세종충남본부	14시, 천안터미널 앞
전북본부	16시, 전주 객사(풍패지관)
광주본부	17시, 5.18민주광장
전남본부	18시, 순천 조례사거리
대구본부	16시, 국채보상공원
경북본부	15시,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부산본부	18시, 서면 동천로
울산본부	14시30분, 남구 삼산롯데백화점광장
경남본부	16시30분, 경남도청
강원본부	15시, 원주 문화의 거리
제주본부	16시, 제주시청 민원실

[발언문]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무엇보다 먼저 전국 곳곳 산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신 데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산불이 진압되고 산불로 일상이 파괴된 시민들이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민주노총은 사즉생의 각오로 사생결단의 투쟁을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월 14일이면 현재가 판결하겠지 기대했습니다. 21일이면 결론이 나겠지 기다렸습니다. 28일이면 이제 이 파괴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까지도 윤석열의 파면 선고로 지연하고 있습니다.

무려 4개월 동안 이 나라는,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감옥에서 웃으며 걸어 나오고, 매일 안에 부역했던 자들이 뻔뻔히 얼굴을 쳐들고 다니고 있는 지금,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더 기다리고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를 배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의 명령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합원 동지들 힘차게 파업 투쟁에 나서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노총이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투쟁한 날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그 가치를 확인한 길, 확인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더더욱 기세롭게, 더더욱 가열차게 전개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이 공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광화문 광장을 박근혜 파면의 광장이었던 바로 이곳을 오세훈은 철망을 둘러쳐 광장과 시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경찰은 동지들의 원편에 보이는 제 나라의 정부종합청사는 내버려 두고 미국의 대사관은 차벽으로 꽂꽂 둘러싸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웁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민주노총은 비상 중집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4월 3일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비상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힘으로 윤석열을 끝장내는 투쟁, 이 나라의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투쟁, 제대로 된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동지들 함께해 주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멈추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 민중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투쟁의 동력을, 모든 노력을 헌법재판소로 향합시다. 민주노총답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당차게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발언문] 3.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발언문

동지들! 요즘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안녕하지 못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안녕하냐는 인사를 건네는 것 자체가 무색하기만 한 요즘입니다. 내란성 질병이 유행인 요즘 답답하다 못해 분노스럽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승리의 기운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안규백입니다. 투쟁!

동지들!

온 나라가 그야말로 난리입니다. 태평양 건너에는 윤석열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인간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된 후 관세 폭탄이다. 뭐다 해서 전 세계 각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12.3 내란의 밤 이후 무위로 돌아간 친위 쿠데타는 누가 봐도 국헌 문란이고, 내란임이 자명한데도 우리 현재는 변론이 종결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선고기일조차 잡지 않고 이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계속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며칠 전 발생한 산불은 잡힐 줄 모른 채 안타까운 피해와 희생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지들!

어제, 오늘 남태령과 이곳 광화문의 상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잡아야 할 불길은 잡지 못하는 이 개떡 같은 나라가, 전 국민이 생중계로 국헌 문란을 목격했음에도 내란 수괴 하나 제대로 가둬 두지 못하는 공권력이 애먼 우리들만 때려잡고 있습니다. 극우 폭력 세력들에게는 또 어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 때려잡던 실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철거민들, 우리 장애인들 때려잡던 그 공권력들은 다 어디서 뿔뿔 뿜어 한답니까? 차라리 이런 공권력 깡그리 모아 불길 잡는 데로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한국지엠지부는 금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전/후반조 2시간 파업을 힘차게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이곳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하나 파면시키자고 지금껏 투쟁해 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 말짱 도루묵의 사태를 이제는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우리 아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다시는 내란 잔당 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온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작은 힘이지만 한국지엠지부도 그 길에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붙임]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건오 부위원장 발언문

먼저 산불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적'이란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 비적은 무장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도둑을 의미합니다.

법 기술을 이용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국민을 해치는 도둑이 있습니다. 검찰, 판사, 헌법재판관 이놈들입니다. 윤석열을 탈옥시킨 주범이 판사이고, 탈옥범·내란범 윤석열이가 거리를 활보하게 만든 주범이 검사고, 명백한 내란에 대해 탄핵 판결을 하지 않는 놈들이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놈들을 '법비'라고 합니다. 이놈들은 법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도둑질 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비겁합니다. 치졸합니다.

이놈들도 공무원이지만 없어져야 할 공무원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놈들과 차원이 다른 양심적인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윤석열이는 내란범이다', '윤석열이를 다시 구속하라', '윤석열이를 탄핵하라' '내란공범들을 구속하라' 외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정치중립 위반입니다. 고발하고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공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도 정치표현을 보장하라!

공무원에게도 정당가입을 허용하라!

공무원에게도 정당활동을 보장하라!

공무원에게도 정치자금 기부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무원에게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것이 쟁취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사회대개혁도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직무상의 정치적 중립'으로 바꿀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바꿔서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를 삭제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공무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바꿔서 정당의 발기인으로, 당원으로, 기탁금도 자유롭게 기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맞이해야 할 새로운 봄날입니다. 함께 연대합시다. 투쟁!